

경제주평

- 수출 1조 달러, 'K'에 달렸다!
-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 점검과 시사점

목 차

■ 수출 1조 달러, 'K'에 달렸다 -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 점검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분석 방법	2
3. 분석 결과	3
4. 시사점	8
< 참고 1 > 품목 분류 방법	11
< 참고 2 > 주요 품목의 수출 요인별 기여도 분해	12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 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제 연 구 실 : 이 예 램 선 임 연구원 (2072-6240, yrlee@hri.co.kr)
노 시 연 연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수출 1조 달러, 'K'에 달렸다!

-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 점검과 시사점

■ 개요

2025년 수출은 사상 최초로 연간 7,0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특정 품목에 편중된 구조에 따른 착시 효과로 수출 경쟁력이 과대평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25년 연간 수출은 7,093억 달러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으나, 이는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의 호조에 의존한 성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20개 품목 중 2025년 수출 증가율(3.8%)을 상회하는 품목이 8개에 불과해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15대 주요 수출 품목 및 5대 유망 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분석 방법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을 통해 주요 20대 품목의 수출 변동 요인을 분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품목의 수출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CMS) 분석을 통해 2022~2024년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율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산출하였다. 우리나라 수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아세안5(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EU 등 4개 수출 상대국을 대상으로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감액(전년대비)을 경쟁력 요인, 품목 수요 요인, 수입 수요 요인 등으로 분해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도출된 품목별 수출 변동 요인을 합산한 후, 이를 전년도 품목별 수출액으로 나누어 품목별 수출 증가율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산출하였다. 앞서 산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경쟁력 및 품목 수요 요인의 기여도 수준에 따라 품목을 금상첨화, 고군분투, 사상누각, 설상가상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분석 결과

2024년 주요 20대 품목의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결과, 품목별 수출 증가율의 방향성이 경쟁력 요인 기여도의 부호(+/-)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쟁력 요인이 양(+인 11개 품목은 모두 2023년 대비 수출이 증가하였다. 품목 중 선박(111.3%p), 컴퓨터(51.4%p), 화장품(22.2%p), 농수산물(14.0%p), 반도체(12.1%p) 등에서 경쟁력 요인의 기여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쟁력 요인이 음(-인 9개 품목은 대체로 수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이차전지($\Delta 30.6\%$ p), 패션의류($\Delta 17.1\%$ p), 일반기계($\Delta 16.4\%$ p) 등에서 경쟁력 요인 약화로 인한 수출 부진이 두드러졌다. 다만, 의료기기의 경우 경쟁력 요인의 기여도가 $\Delta 0.3\%$ p이었으나, 품목 수요 및 수입 수요 요인이 감소 폭을 상쇄하여 수출 증가율은 증가하였다.

< 주요 20대 품목 수출 요인별 기여도 분해 >

(단위: %, %p)

유형	품목명	경쟁력	품목 수요	수입 수요	수출 증가율
금상첨화	반도체	12.1	8.9	4.0	25.0
	선박	111.3	16.4	△1.8	126.0
	무선통신기기	8.0	0.0	1.9	9.9
	컴퓨터	51.4	49.7	4.7	105.9
	의약품	2.0	6.5	0.5	9.1
고군분투	석유화학	5.2	△0.7	2.4	7.0
	자동차	7.0	△1.2	3.8	9.6
	자동차부품	4.4	△2.3	3.3	5.3
	농수산식품	14.0	△1.4	4.3	17.0
	화장품	22.2	△3.4	3.0	21.8
	생활유아용품	4.0	△0.4	4.5	8.1
사상누각	일반기계	△16.4	8.1	3.2	△5.1
	의료기기	△0.3	1.7	2.2	3.7
	섬유	△9.1	1.6	5.6	△1.9
	이차전지	△30.6	0.1	3.3	△27.2
	패션의류	△17.1	1.6	2.7	△12.7
설상가상	석유제품	△2.8	△10.4	6.9	△6.3
	철강제품	△3.8	△4.9	3.4	△5.3
	디스플레이	△5.1	△5.4	7.6	△2.9
	가전	△6.3	△0.4	4.6	△2.2

자료 : UN Comtrade, Trade Map,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3년 대비 2024년 기준.

① 금상첨화형

금상첨화형은 경쟁력 및 품목 수요 요인이 동시에 양(+)으로 작동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출 성과 유형이나, 품목별로 수출 확대의 성격과 모멘텀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도체, 컴퓨터, 의약품 등의 2024년 경쟁력 기여도는 2022년 수준을 상회하였다. 반도체는 고부가제품(HBM, DDR5 등)을 중심으로 특히 중국 시장(10.1%p)에서 경쟁력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컴퓨터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나타나는 미국(45.5%p), EU(7.3%p) 등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SSD 기술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로 미국에서 경쟁력이 강화(6.4%p)되었다. 선박은 2024년 20개 품목 중 가장 큰 폭의 경쟁력 강화(111.3%p)를 기록하였다. 이는 EU(91.5%p)와 아세안5(19.8%p)를 중심으로 탈탄소 규제 대응 및 대형 발주 수요가 집중되며 고부가·친환경 선박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무선통신기기는 2024년 고가형 모델(AI 탑재, 폴더블 등)을 중심으로 중국(8.5%p) 등에서 경쟁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2023년 음의 경쟁력 기여도에 의한 기저효과에도 2022년 수준(15.0%p)을 하회하는 것을 보아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② 고군분투형

고군분투형은 글로벌 품목 수요가 부진한 환경에서도 자체적인 제품 경쟁력과 차별화 전략으로 단점을 극복하고 수출을 확대한 품목이다. 화장품과 농수산물식품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경쟁력 기여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화장품은 K-뷰티 열풍이 실구매로 전환되며 미국(11.2%p), EU(5.4%p), 아세안5(3.5%p), 중국(2.1%p) 등 전 지역에서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농수산물식품은 K-드라마·K-팝과 연계한 한국 식문화 인지도 상승에 따라 중국(6.7%p), 미국(5.7%p), EU(2.6%p) 등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자동차와 생활유아용품은 3년 연속 경쟁력 기여도를 양(+)으로 유지하였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특히 미국(12.6%p)에 집중되어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미국을 제외한 EU(△4.5%p) 등에서는 경쟁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생활유아용품은 K-브랜드 선호 증가로 미국(3.8%p) 등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자동차부품과 석유화학은 2023년 음(-)에서 2024년 양(+)으로 전환되었다. 자동차부품은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조에 따라 관련 부품을 중심으로 미국(3.3%p) 시장에서, 석유화학은 중국(3.1%p)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어 2022년 수준을 상회하였다. 다만, 부호가 일관되지 않아 추세적 강화 여부는 추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③ 사상누각형

사상누각형은 품목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감소한 유형으로 향후 품목 수요마저 위축될 경우 수출 타격이 심화될 위험을 내포한다. 이차전지는 3년 연속 음(-)의 경쟁력으로 20개 품목 중 가장 부진하였다. 미국(△25.3%p)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가장 결정적이며, 이는 중국산 저가 LFP(리튬 인산철) 배터리 등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에서의 열위로 판단된다. 일반기계, 섬유, 패션의류 등은 2024년 경쟁력 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일반기계는 중국의 저가 범용기계 수출로 아세안5(△6.9%p), 중국(△5.4%p), EU(△5.4%p) 등 대부분 지역에서 경쟁력이 약화하였다. 섬유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저임금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점차 후퇴한 것으로 분석되며, 아세안5(△4.8%p)를 중심으로 전 지역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패션의류도 중국, 베트남 등 저가 경쟁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 기여도(△10.3%p)가 크게 하락하였다. 의료기기는 타 품목 대비 2024년 경쟁력 기여도의 하락 폭은 제한적이었다. 의료기기의 경쟁력 기여도는 2023년 △12.9%p로 급락한 후, 2024년에는 △0.3%p로 하락 폭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경쟁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품목 수요 및 수입 수요의 기여도가 감소 폭을 상쇄하며 예외적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④ 설상가상형

설상가상형은 품목 수요가 감소하는 악조건과 자체적인 제품 경쟁력까지 동반 하락하며 수출 실적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품목이다. 석유제품의 경쟁력 기여도는 2

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 미국(3.0%p)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었으나, EU($\Delta 4.2\%$ p) 및 중국($\Delta 1.6\%$ p) 등 주요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한 부진을 상쇄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다만, 경쟁력 요인의 감소 폭은 줄어드는 추세로 이후 경쟁력 추세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의 경쟁력 기여도는 2023년 양(+)에서 2024년 음(-)으로 전환되었다. 지역별로 중국(1.6%p)에서 소폭 선방하였으나, 아세안5($\Delta 7.0\%$ p)에서 경쟁력을 크게 상실하였으며, 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상실한 영향으로 보인다. 철강제품과 가전의 경쟁력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제품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와의 경쟁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이며 아세안5($\Delta 2.2\%$ p)와 EU($\Delta 2.1\%$ p) 시장에서 일제히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가전은 중국 가전 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2년 연속 경쟁력 기여도의 마이너스 폭을 키우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Delta 5.7\%$ p)에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 시사점

2026년에도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외형적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의 초격차 지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시장별 맞춤 전략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유망 신산업 및 소비재 품목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 셋째,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넷째, 수출 성과가 국내 실물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직결될 수 있도록 내수와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1. 개요

- 2025년 수출은 사상 최초로 연간 7,0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특정 품목에 편중된 구조에 따른 착시 효과로 수출 경쟁력이 과대평가 될 것으로 우려
 - 2025년 연간 수출은 7,093억 달러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으나, 이는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의 호조에 의존한 성과
 - 2025년 수출은 반도체 품목이 큰 폭으로 증가(전년대비 22.2%)함에 따라 전년대비 3.8% 증가한 7,093억 달러를 기록
 - 반면, 非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1%를 기록하며 특정 품목에 편중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남
 - 이러한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져 2026년 1~4월 반도체 및 非반도체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각각 148.1%, 13.3%를 기록
 -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20개 품목 중 2025년 수출 증가율(3.8%)을 상회하는 품목이 8개에 불과해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
- 이에 본 보고서는 15대 주요 수출 품목 및 5대 유망 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반도체·非반도체 수출액 및 수출 증가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1) 2026년은 2026년 1~4월 누계 기준.
 2) MTI 기준.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 2025년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 >

품목명	수출 증가율	품목명	수출 증가율
반도체	22.2	바이오헬스	7.9
석유제품	△9.7	컴퓨터	4.4
석유화학	△11.4	섬유	△7.5
자동차	1.7	이차전지	△11.9
일반기계	△8.4	가전	△8.8
철강제품	△9.0	농수산물	6.4
자동차부품	△5.9	화장품	12.2
디스플레이	△9.4	패션의류	0.1
선박	24.1	생활유아용품	5.0
무선통신기기	0.4	의약품	12.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1) MTI 기준.
 2) 증가율은 전년대비 기준.

2. 분석 방법

-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을 통해 주요 품목별 수출 변동 요인을 분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품목의 수출 경쟁력을 평가
-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CMS) 분석을 통해 2022~2024년 주요 20대 품목의 수출 증가율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산출
 - 우리나라 수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아세안5(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EU 등 4개 수출 상대국을 대상으로 주요 품목1)의 수출 증감액2)(전년대비)을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을 통해 경쟁력 요인, 품목 수요 요인, 수입 수요 요인 등으로 분해
 - 각 지역에서 도출된 품목별 수출 변동 요인을 합산한 후, 이를 전년도 품목별 수출액으로 나누어 품목별 수출 증가율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산출

<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방법 >

$$\frac{X_{i,t_1} - X_{i,t_0}}{\text{수출증감액}} = \frac{M_{i,t_1}(\theta_{i,t_1} - \theta_{i,t_0})}{\text{경쟁력요인}} + \frac{\theta_{i,t_0} M_{i,t_1}(\alpha_{i,t_1} - \alpha_{i,t_0})}{\text{품목수요요인}} + \frac{\theta_{i,t_0} \alpha_{i,t_0} (M_{t_1} - M_{t_0})}{\text{수입수요요인}}$$

$X_{i,t}$: t기 한국의 i품목 對 상대국 수출액 (t기 상대국의 i품목 對 한국 수입액)
 $M_{i,t}$: t기 상대국의 i품목 수입액 $\theta_{i,t}$: t기 한국의 i품목 상대국 수입시장 점유율
 $\alpha_{i,t}$: t기 상대국의 총수입 중 i품목 비중 M_t : t기 상대국의 총수입액

- 앞서 산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경쟁력 및 품목 수요 요인의 기여도 수준에 따라 품목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2024년 기준, 경쟁력 및 품목 수요 요인의 기여도가 양(+)의 값을 갖는 경우 우위(強), 음(-)의 값을 갖는 경우 열위(弱)로 구분

< 요인별 유형 분류 >

구분	경쟁력 強	경쟁력 弱
품목 수요 強	금상첨화(錦上添花)	사상누각(沙上樓閣)
품목 수요 弱	고군분투(孤軍奮鬪)	설상가상(雪上加霜)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1) 분석 대상 품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11의 < 참고 1 >을 참조.
 2) 본 분석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 및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한국의 對 상대국 수출 통계 대신 상대국의 對 한국 수입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치상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3. 분석 결과

○ 2024년 주요 20대 품목의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결과, 품목별 수출 증가율의 방향성이 경쟁력 요인 기여도의 부호(+/-)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나타남

- 경쟁력 요인이 양(+)인 11개 품목은 모두 2023년 대비 수출이 증가
 - 품목 중 선박(111.3%p), 컴퓨터(51.4%p), 화장품(22.2%p), 농수산물(14.0%p), 반도체(12.1%p) 등에서 경쟁력 요인의 기여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경쟁력 요인이 음(-)인 9개 품목은 대체로 수출이 감소하는 경향
 - 특히, 이차전지(△30.6%p), 패션의류(△17.1%p), 일반기계(△16.4%p) 등에서 경쟁력 요인 약화로 인한 수출 부진이 두드러짐
 - 다만, 의료기기의 경우 경쟁력 요인의 기여도가 △0.3%p이었으나, 품목 수요 및 수입 수요 요인이 감소 폭을 상쇄하여 수출 증가율은 증가

< 주요 20대 품목 수출 요인별 기여도 분해 >

(단위: %, %p)

유형	품목명	경쟁력	품목 수요	수입 수요	수출 증가율
금상첨화	반도체	12.1	8.9	4.0	25.0
	선박	111.3	16.4	△1.8	126.0
	무선통신기기	8.0	0.0	1.9	9.9
	컴퓨터	51.4	49.7	4.7	105.9
	의약품	2.0	6.5	0.5	9.1
고군분투	석유화학	5.2	△0.7	2.4	7.0
	자동차	7.0	△1.2	3.8	9.6
	자동차부품	4.4	△2.3	3.3	5.3
	농수산물	14.0	△1.4	4.3	17.0
	화장품	22.2	△3.4	3.0	21.8
	생활유아용품	4.0	△0.4	4.5	8.1
사상누각	일반기계	△16.4	8.1	3.2	△5.1
	의료기기	△0.3	1.7	2.2	3.7
	섬유	△9.1	1.6	5.6	△1.9
	이차전지	△30.6	0.1	3.3	△27.2
	패션의류	△17.1	1.6	2.7	△12.7
설상가상	석유제품	△2.8	△10.4	6.9	△6.3
	철강제품	△3.8	△4.9	3.4	△5.3
	디스플레이	△5.1	△5.4	7.6	△2.9
	가전	△6.3	△0.4	4.6	△2.2

자료 : UN Comtrade, Trade Map,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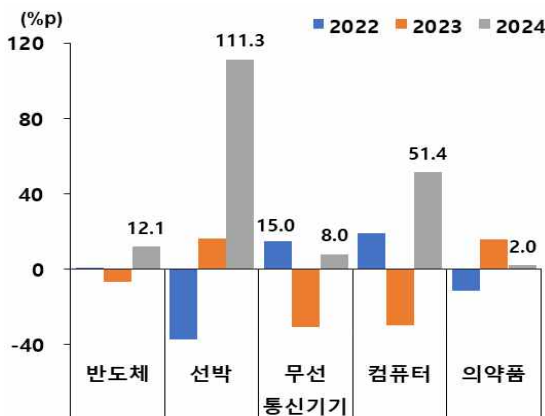
주 : 2023년 대비 2024년 기준.

① 금상첨화형

○ 금상첨화형은 경쟁력 및 품목 수요 요인이 동시에 양(+)으로 작동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출 성과 유형이나, 품목별로 수출 확대의 성격과 모멘텀이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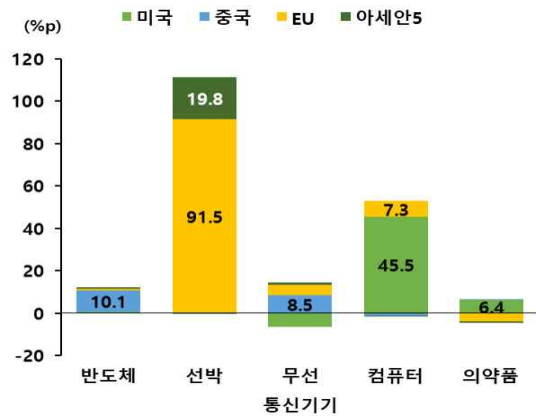
- 반도체, 컴퓨터, 의약품 등의 2024년 경쟁력 기여도는 2022년 수준을 상회
 - 반도체는 고부가제품(HBM, DDR5 등)을 중심으로 특히 중국 시장(10.1%p)에서 경쟁력이 확대되는 양상
 - 컴퓨터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나타나는 미국(45.5%p), EU(7.3%p) 등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SSD 기술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로 미국에서 경쟁력이 강화(6.4%p)
- 선박은 2024년 20개 품목 중 가장 큰 폭의 경쟁력 강화(111.3%p)를 기록
 - EU(91.5%p)와 아세안5(19.8%p)를 중심으로 탈탄소 규제 대응 및 대형 발주 수요가 집중되며 고부가·친환경 선박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임
- 무선통신기기는 2024년 경쟁력이 양(+)이지만, 추세에 대한 추가 관찰이 필요
 - 무선통신기기는 고가형 모델(AI 탑재, 폴더블 등)을 중심으로 중국(8.5%p) 등에서 경쟁력이 강화되는 모습
 - 다만, 2023년 음의 경쟁력 기여도에 의한 기저효과에도 2022년 수준(15.0%p)을 하회하는 것을 보아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

< 금상첨화 경쟁력 기여도 추이 >



자료 : UN Comtrade, Trade Map,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대비 기준.

< 금상첨화 지역별 경쟁력 기여도 >



자료 : UN Comtrade, Trade Map,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3년 대비 2024년 기준.

② 고군분투형

○ 고군분투형은 글로벌 품목 수요가 부진한 환경에서도 자체적인 제품 경쟁력과 차별화 전략으로 단점을 극복하고 수출을 확대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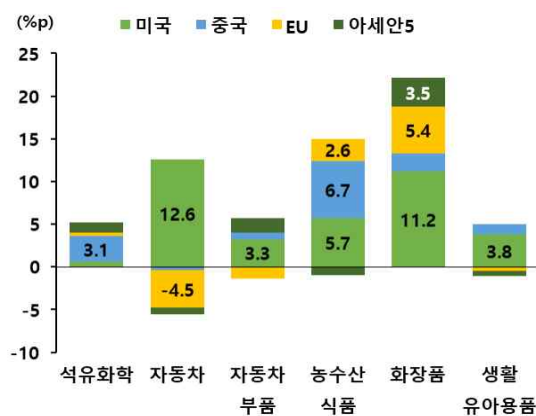
- 화장품과 농수산식품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경쟁력 기여도가 크게 상승
 - 화장품은 K-뷰티 열풍이 실구매로 전환되며 미국(11.2%p), EU(5.4%p), 아세안 5(3.5%p), 중국(2.1%p) 등 전 지역에서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농수산식품은 K-드라마·K-팝과 연계한 한국 식문화 인지도 상승에 따라 중국(6.7%p), 미국(5.7%p), EU(2.6%p) 등에서 경쟁력이 강화
- 자동차와 생활유아용품은 3년 연속 경쟁력 기여도를 양(+)으로 유지
 -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특히 미국(12.6%p)에 집중되어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미국을 제외한 EU(△4.5%p) 등에서는 경쟁력이 약화되는 모습
 - 생활유아용품은 K-브랜드 선호 증가로 미국(3.8%p) 등에서 경쟁력이 강화
- 자동차부품과 석유화학은 2023년 음(-)에서 2024년 양(+)으로 전환
 - 자동차부품은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조에 따라 관련 부품을 중심으로 미국(3.3%p) 시장에서, 석유화학은 중국(3.1%p)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어 2022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부호가 일관되지 않아 추세적 강화 여부는 추가 관찰이 필요

< 고군분투 경쟁력 기여도 추이 >



자료 : UN Comtrade, Trade Map,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대비 기준.

< 고군분투 지역별 경쟁력 기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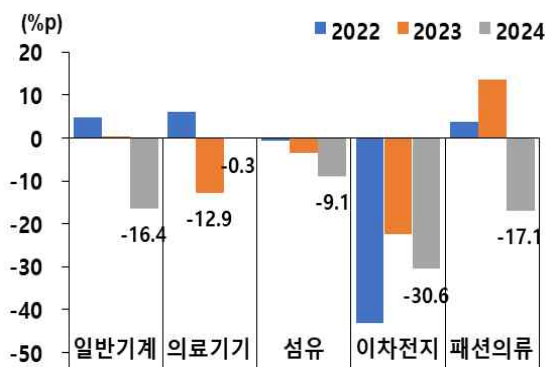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Trade Map,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3년 대비 2024년 기준.

③ 사상누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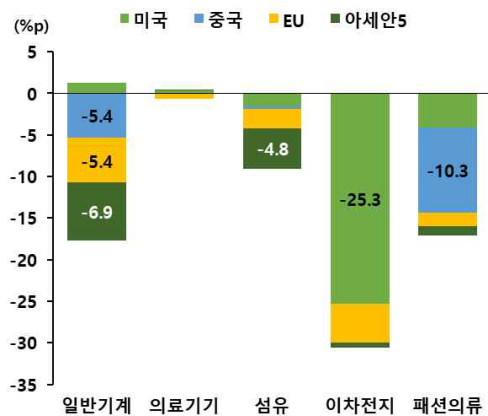
○ 사상누각형은 품목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감소한 유형으로 향후 품목 수요마저 위축될 경우 수출 타격이 심화될 위험을 내포

- 이차전지는 3년 연속 음(-)의 경쟁력으로 20개 품목 중 가장 부진
 - 2024년은 미국(△25.3%p)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가장 결정적이며, 중국산 저가 LFP(리튬 인산철) 배터리 등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에서의 열위로 판단
- 일반기계, 섬유, 패션의류 등은 2024년 경쟁력 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
 - 일반기계는 중국의 저가 범용기계 수출로 아세안5(△6.9%p), 중국(△5.4%p), EU(△5.4%p) 등 대부분 지역에서 경쟁력이 약화
 - 섬유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저임금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점차 후퇴한 것으로 분석되며, 아세안5(△4.8%p)를 중심으로 전 지역에서 경쟁력이 약화
 - 패션의류도 중국, 베트남 등 저가 경쟁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 기여도(△10.3%p)가 크게 하락
- 의료기기는 타 품목 대비 2024년 경쟁력 기여도의 하락 폭은 제한적
 - 의료기기의 경쟁력 기여도는 2023년 △12.9%p로 급락한 후, 2024년에는 △0.3%p로 하락 폭이 축소되었으며, 경쟁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품목 수요 및 수입 수요의 기여도가 감소 폭을 상쇄하며 예외적으로 수출이 증가

< 사상누각 경쟁력 기여도 추이 >



< 사상누각 지역별 경쟁력 기여도 >



자료 : UN Comtrade, Trade Map,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대비 기준.

자료 : UN Comtrade, Trade Map,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3년 대비 2024년 기준.

④ 설상가상형

○ 설상가상형은 품목 수요가 감소하는 악조건과 자체적인 품목 경쟁력까지 동반 하락하며 수출 실적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품목

- 석유제품의 경쟁력 기여도는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지역별로 미국(3.0%p)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었으나, EU(△4.2%p) 및 중국(△1.6%p) 등 주요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한 부진을 상쇄하기에 역부족이었음
- 다만, 경쟁력 요인의 감소 폭은 줄어드는 추세(2023년 △13.2%p → 2024년 △2.8%p)로 이후 경쟁력 추세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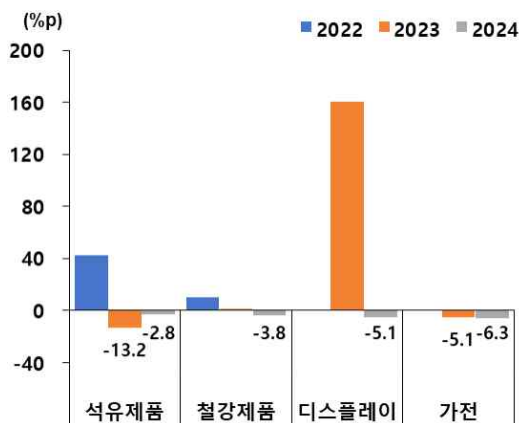
- 디스플레이의 경쟁력 기여도는 2023년 양(+)에서 2024년 음(-)으로 전환

- 지역별로 중국(1.6%p)에서 소폭 선방하였으나, 아세안5(△7.0%p)에서 경쟁력을 크게 상실하였으며, 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상실한 영향

- 철강제품과 가전의 경쟁력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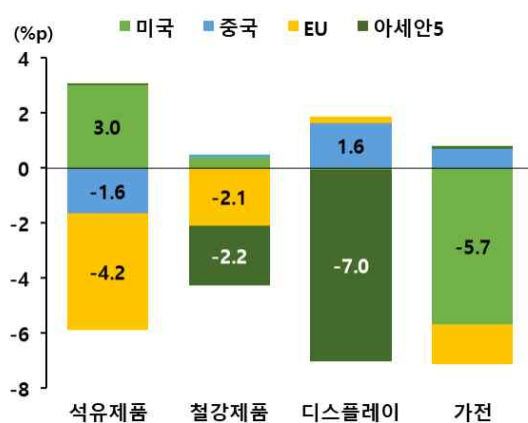
- 철강제품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와의 경쟁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이며 아세안5(△2.2%p)와 EU(△2.1%p) 시장에서 일제히 경쟁력을 상실
- 가전은 중국 가전 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2년 연속 경쟁력 기여도의 마이너스 폭을 키우고 있으며(2023년 △5.1%p → 2024년 △6.3%p), 특히 미국 시장(△5.7%p)에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

< 설상가상 경쟁력 기여도 추이 >



자료 : UN Comtrade, Trade Map,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대비 기준.

< 설상가상 지역별 경쟁력 기여도 >



자료 : UN Comtrade, Trade Map,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3년 대비 2024년 기준.

4. 시사점

- 2026년에도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외형적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해야 함

첫째,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의 초격차 지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

- 반도체, 선박 등 기존 주력 품목의 기술 고도화 및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도모하고, R&D 투자 확대 및 스마트 제조 공정 도입으로 후발 주자와의 경쟁력 격차를 유지해야 함
- 친환경·저탄소 생산 방식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여 글로벌 환경 규제를 경쟁 우위 요소로 활용할 필요
- 또한, 수출 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맞춘 제품 차별화 및 가격 다변화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현지 시장 적합성을 높여야 함
- 아울러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이를 기반으로 현지 규제 대응, 해외 마케팅 전략 조정 등을 신속 지원하여 주력 품목의 수출 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

둘째, 유망 신산업 및 소비재 품목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

- 화장품, 농수산물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품목이 제2의 주력 수출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수출 맞춤형 금융 지원 및 현지 규제 대응 컨설팅을 활성화할 필요

- 유망 품목에 대한 해외 인증 획득 지원, 국제 전시회 참가 기회 확대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진출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임
- 특히, K-콘텐츠 확산에 따른 한류의 영향력이 연관 소비재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순 물량 확대를 넘어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수출 구조를 구축해야 함
- 한편, 한류가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국가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마련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

셋째,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주요국과의 전략적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비관세 장벽 등 통상 애로를 즉각 해소하는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상시 운영해야 함
- 특히, 경제 안보 관점에서 우방국과의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품목 중심의 공급망 연계를 확대하여 중장기적인 수출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 특정 국가에 편중된 시장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유망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여 수출 판로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수출 성과가 국내 실물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직결될 수 있도록 내수와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 주요 수출 품목과 국내 연관 산업 간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강화하여 수출 낙수효과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파급되도록 해야 함

- 고용 유발 효과가 큰 물류,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업을 제조 수출과 패키지화 하여 지원함으로써 수출 성과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함
- 특히, 수출 대기업과 협력사 간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수출 이익이 국내 설비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마련하여 수출의 마중물 역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HRI**

이 예 랫 선 임 연구 원 (2072-6240, yrlee@hri.co.kr)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

< 참고 1 > 품목 분류 방법

- 산업통상부의 15대 주요 수출 품목과 5대 유망 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분석
 - 15대 주요 수출 품목 :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³⁾, 선박, 무선통신기기, 의료기기⁴⁾, 컴퓨터, 섬유, 이차전지, 가전
 - 5대 유망 소비재 품목 : 농수산식품,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 글로벌 통계와의 연계를 위해 산업통상부 분류 체계인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를 국제 통용 표준인 HS(Harmonized System) 코드로 재분류
 - 다만, 분류 체계 간의 정의 차이로 인해 품목별 데이터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품목 분류 방법 >

품목명	MTI 코드	HS 코드
반도체	831	8473, 8541, 8542
석유제품	133	2710
석유화학	21	29, 39(3920, 3921, 3926 제외)
자동차	741	8703
일반기계	71, 72, 75, 79	84(8418, 8450, 8473, 8486 제외)
철강제품	61	72, 73
자동차부품	742	8708
디스플레이	8361	8524
선박	746	89
무선통신기기	812	8517, 8529
의료기기	733, 8147	9018, 9021
컴퓨터	813	8523
섬유	4	52, 54, 55, 56, 59, 60, 63
이차전지	8352	8507
가전	82	8418, 8450, 8512, 8516
농수산식품	0	03, 19, 20, 21, 22, 24
화장품	2273	3304
패션의류	441, 5212, 991	61, 62
생활유아용품	51	34, 3926, 7114, 94, 95
의약품	2262	3002, 3004, 382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3) 2022년에 HS 코드가 신설되어 이전 데이터 없음.

4) 바이오헬스의 MTI 코드 부재에 따라 의료기기로 대체하였으며, 해당 코드는 2026년 6월 신설 예정.

< 참고 2 > 주요 품목의 수출 요인별 기여도 분해

< 주요 품목의 수출 요인별 기여도 분해 >

(단위: %, %p)

품목명	2022년				2023년				2024년			
	경쟁력	품목수요	수입수요	수출증감률	경쟁력	품목수요	수입수요	수출증감률	경쟁력	품목수요	수입수요	수출증감률
반도체	0.7	△3.8	7.0	3.9	△6.7	△7.9	△7.2	△21.8	12.1	8.9	4.0	25.0
석유제품	42.3	25.2	14.2	81.7	△13.2	0.2	△8.9	△21.9	△2.8	△10.4	6.9	△6.3
석유화학	4.1	△4.9	8.7	7.9	△3.6	△8.5	△7.8	△20.0	5.2	△0.7	2.4	7.0
자동차	7.0	△8.1	18.5	17.4	12.5	34.2	△8.3	38.4	7.0	△1.2	3.8	9.6
일반기계	4.8	△11.6	13.1	6.3	0.4	6.6	△8.5	△1.6	△16.4	8.1	3.2	△5.1
철강제품	10.4	△4.9	14.4	19.9	1.6	△7.2	△8.9	△14.6	△3.8	△4.9	3.4	△5.3
자동차부품	2.5	△5.6	16.1	13.1	△6.7	8.6	△8.4	△6.5	4.4	△2.3	3.3	5.3
디스플레이	-	-	-	-	160.5	1.5	△6.0	156.1	△5.1	△5.4	7.6	△2.9
선박	△37.1	△16.1	20.8	△32.4	16.3	25.6	△12.8	29.0	111.3	16.4	△1.8	126.0
무선통신기기	15.0	△28.3	11.0	△2.3	△30.6	△10.2	△8.3	△49.1	8.0	0.0	1.9	9.9
의료기기	6.1	△10.5	14.2	9.9	△12.9	15.2	△8.9	△6.7	△0.3	1.7	2.2	3.7
컴퓨터	19.0	△7.9	16.7	27.8	△29.8	△24.8	△7.5	△62.1	51.4	49.7	4.7	105.9
섬유	△0.5	△14.7	15.2	△0.1	△3.5	△6.2	△9.0	△18.7	△9.1	1.6	5.6	△1.9
이차전지	△43.0	35.3	18.4	10.7	△22.5	25.3	△8.9	△6.1	△30.6	0.1	3.3	△27.2
가전	0.6	△11.9	15.8	4.5	△5.1	1.1	△7.3	△11.2	△6.3	△0.4	4.6	△2.2
농수산식품	△5.7	1.1	12.5	7.9	5.1	6.5	△7.8	3.7	14.0	△1.4	4.3	17.0
화장품	△16.1	△11.4	5.8	△21.7	9.3	△3.1	△6.9	△0.8	22.2	△3.4	3.0	21.8
패션의류	3.7	△2.9	10.6	11.4	13.5	△3.7	△7.6	2.2	△17.1	1.6	2.7	△12.7
생활유아용품	3.7	△11.3	12.2	4.6	1.5	△4.8	△7.9	△11.2	4.0	△0.4	4.5	8.1
의약품	△11.5	△24.2	20.4	△15.2	15.9	12.6	△10.0	18.5	2.0	6.5	0.5	9.1

자료 : UN Comtrade, Trade Map,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대비 기준.